

# |||keri||| 경제동향과 전망

1996년 12월

---

## 동향과 전망

제 1 장 국내경제 .....	5
제 2 장 해외경제 .....	29
제 3 장 최근 경제의 평가와 경제운영방향 .....	37

---

## 부록

경제정책정보 .....	53
주요경제통계 .....	62

**한국경제연구원**

# 동향과 전망

---

## 제1장 국내경제

1. 경기 및 성장
2. 민간소비
3. 고정투자
4. 대외거래
5. 환율
6. 통화금융
7. 금리 및 자금사정

---

## 제2장 해외경제

1. 국제환율
2. 국제금리
3. 국제원자재가격

---

## 제3장 최근 경제의 평가와 경제운영방향

1. 최근 경기추이의 판단 및 향후 전망
2. 예상되는 정책과제
3. 96/97 경제운영방향



## 제 1 장

# 국내경제

### 1. 경기 및 성장

#### (1) 4/4분기 및 96년 실적의 추정전망

- 지난 해 4/4분기 이후 하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경기는 올들어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실질GDP성장률은 1/4분기 7.9%, 2/4분기 6.8% 그리고 3/4분기 6.4%를 기록한데 이어 4/4분기 중에는 3/4분기와 비슷한 6.5%내외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연간성장율은 6.9%내외로 전망됨.
- 지난 3/4분기중 국내총생산은 수요부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은 광공업생산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6.4%의 성장율을 기록함.
-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광공업생산의 증가는 높은 재고부담을 4/4분기이후로 이월함으로써 향후 경기하강국면의 지속을 장기화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됨.
- 4/4분기 성장률이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 것은 지난 해 4/4분기중 급격한 성장율하락(3/4분기 9.8%=>4/4분기 6.8%)에 따른 반동효과와 올 4/4분기중 쌀농사의 풍작에 따른 것임.
- 미작호황에 따른 GDP성장률 상승효과는 0.1%포인트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

## 동향과 전망

- 지난 90년대초 주택200만호건설 기간을 제외하고는 과거 우리경제의 경기순환은 대외요인 즉, 수출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왔음. 이번 경기순환에 있어서도 수출호조에 힘입어 확장되었던 국내경제가 금년 2/4분기 이후 수출의 급격한 위축 및 이에 따른 설비투자둔화로 경기위축이 심화되고 있음.
- 3/4분기중 수출 절대액이 감소하는 부진이후 4/4분기 들어 전년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신용장대도액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단기간내 현저한 수출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2) 96/97년 경제전망

### <성장>

- 내년중에도 국내경제는 현재의 경기수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4/4분기 또는 98년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이 예상됨. 연간성장률도 올해의 추정치 6.9%보다 더욱 낮은 6.3%내외로 전망됨.
- 이번 경기하강은 경기확장기이후 나타나는 순환적인 성격과 일부 수출주도품목의 국제시황악화에 따른 교역단가하락 그리고 지난 85년이후 3저호황이후 심화된 우리경제의 “고비용-저효율”체질 등이 겹쳐진 복합불황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순환적인 측면에서는 주요업종에서 수출 및 내수가 둔화되고 재고가 증가하며 생산과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전형적인 경기하강국면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수출(이하 국제수지기준)은 작년 31.5%의 폭발적인 증가세에서 올 3/4분기중에는 -8.3%의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올해 연간 수출증가율은 4.7%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최근 수

출은 수출물량면에서는 크게 둔화되지 않아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으나 간접적으로 국내기업들의 투자와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 내년에는 수출이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율은 한자리수인 9.3%내외로 전망됨.

- 내수는 올 하반기들어 내수용소비재와 도소매판매 등이 둔화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97년중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소비의 경우, 경기후행적인 특성으로 급속한 경기하강을 제어하는 완충역할을 하여 왔으나 이번 경기하강국면에 있어서는 3/4분기중 이미 민간소비지출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밑돌았으며 내년중에도 이같은 추이의 지속이 전망됨으로써 민간소비지출증가에 의한 경기지지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표 1 〉 96/97년 경제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1996	1997				1997
			1/4	2/4	3/4	4/4		1/4	2/4	3/4	4/4	
G D P	8.6	9.0	7.9	6.8	6.4	6.5	6.9	6.6	6.7	6.4	5.7	6.3
제조업	10.4	10.7	7.8	6.5	7.0	6.4	6.9	6.4	6.3	6.0	5.6	6.1
최종소비	7.0	7.2	7.2	6.8	5.9	6.0	6.5	6.1	5.8	5.6	5.6	5.8
민간소비	7.6	7.9	7.5	7.1	6.0	6.2	6.6	5.9	5.6	5.6	5.8	5.7
고정투자	11.8	12.4	7.5	4.3	6.5	5.8	5.8	4.0	4.0	3.5	3.1	3.6
설비투자	23.6	15.9	4.3	3.5	8.7	6.4	5.7	3.7	3.5	3.0	2.9	3.3
건설투자	4.5	9.9	10.2	4.9	4.7	4.7	5.9	4.3	4.4	3.8	3.2	3.9
생산자물가	2.7	4.7	3.1	1.8	2.3	2.9	2.5	3.3	3.5	3.3	3.3	3.3
소비자물가	6.2	4.5	4.9	5.1	5.2	4.9	5.0	5.1	5.0	4.8	4.4	4.8
경상수지	-45.3	-89.5	-43.5	-54.7	-72.6	-44.2	-215.0	-54.6	-57.9	-54.3	-27.6	-194.5
무역수지	-31.5	-47.5	-23.9	-36.7	-48.0	-27.9	-136.5	-35.5	-41.2	-37.7	-13.7	-128.1
수출	936.7	1,232.0	315.6	334.1	291.6	348.2	1,289.5	330.9	358.1	330.1	390.4	1,409.4
(증감율)	15.7	31.5	20.8	6.6	-8.3	2.4	4.7	4.8	7.2	13.3	12.0	9.3
수입	968.2	1,279.5	339.7	370.8	339.4	376.1	1,426.0	366.5	399.5	367.8	404.1	1,538.7
(증감율)	22.4	32.1	18.4	12.1	4.1	11.9	11.4	7.9	7.7	8.4	7.6	7.9
무역외	-13.8	-4.2	-19.6	-18.0	-24.6	-16.3	-78.5	-19.1	-16.7	-16.2	-13.9	-66.4

주 : 국제수지부분은 億弗, 1) 이전수지 포함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 동향과 전망

- 반면 채용은 올해 20%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생산증가율도 작년의 두자리수에서 올해에는 한자리수로 떨어졌음. 그러나 올 4/4분기부터 완만하나마 채용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내년에는 채용증가율이 둔화되고 생산증가세가 회복될 것으로 판단됨.
- 설비투자는 지난해 경기호황을 반영하여 15.9%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올해 상반기중 3.8%에 그쳤음. 하반기중에는 다소 높아졌으나 연간으로는 5.7%내외 증가세가 예상되며 내년중 설비투자는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더욱 둔화되어 연간 3.3%에 그칠 전망이다.
-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년중 국내경제는 4/4분기 이후에야 비로소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경기수축기간이 과거의 평균기간인 19개월보다 긴 24개월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이같은 계량적인 예측결과에 비하여 실제 기업의 투자심리는 더욱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예컨대, 전경련과 산업은행이 지난 달 각각 조사한 내년도 대기업의 투자계획에 의하면, 이들 대기업의 투자계획상 명목 투자증가율은 0.6%내외로 나타났음. 이같은 결과는 실질투자가 올해보다 감소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임.
- 4/4분기 이후 경기회복의 근거는 먼저 내년 3/4분기 이후 수출회복이 예상되고 채용조정 효과도 하반기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임. 이같은 예상은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이 내년중 올해보다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이고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주력품목들의 수출시장가격이 내년에는 다소 안정될 것이란 전망에 근거함.
- 또한 설비투자 역시 작년 4/4분기 이후 현저해진 기업들의 투자조정과정이 내년 4/4분기 중에는 2년에 걸쳐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수출여건이나 기업의 투자심리도 금년보다 호전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임.

-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경우, 7-9년의 확장기와 2-3년의 조정기를 거쳐왔는데 이미 92-93년에 걸친 순환적 조정기를 겪은 바 있어 올해처럼 급격한 수출감소요인이 없는 한, 재고조정후의 설비가동율이 70%대로 떨어지는 내년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됨.
- 경기순환적인 요인외에 지난해 하반기이후의 엔화약세 지속과 세계교역둔화, 그리고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소재의 국제가격의 하락 등 대외시장여건이 악화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 및 장기화되고 있음.
- 엔화의 약세반전과 지속으로 수출품목구조가 일본과 유사한 우리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세계교역의 둔화로 해외수입수요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작년대비 70%이상 (71.6%) 하락한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수출품목의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국제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수출부진이 우리경제전반에 과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그간의 경제체질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우리경제의 경직적인 구조적 취약성이 경기침체로 부터의 자율적인 반등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쟁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물류비, 금융비용, 지대와 높은 행정규제비용 등이 이번 경기수축기동안에도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기업은 수출상품의 질적 경쟁력 제고보다는 환율 등 가격경쟁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대외거래>

- 당초 금년중 경기하강으로 축소가 예상되었던 경상수지적자는 수출단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무역외수지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작년(89.5억불)의 두배가 넘는 215억불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수출(9.3%)이 완만하게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수입(7.9%)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적자는 소폭 축소된 195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동향과 전망

- 올들어 소비재수입의 급증으로 수입신장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은 3/4분기중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크게 위축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어 국제수지기준 무역적자는 10월까지 125.8억불 그리고 올 한해 통안은 136.5억불에 달해 지난해 적자규모의 약 3배에 달할 전망이다.
- 4/4분기 들어 수출은 미세한 증가세(10월 3%, 11월 0.3%)로 반전하고 있으나, 신용장내 도액이 여전히 감소세를 기록하고 엔화 약세기조가 미국대통령선거 이후에도 계속됨으로써 연간 수출증가율은 4.7%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더욱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호조를 보였던 기계류, 산업용전자 등의 수출도 부진상을 보이고 있음.
- 수입의 경우, 국내경기둔화를 반영하여 자본재수입은 한자리수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으나 소비재수입은 수입자유화 확대와 유통시장 전면개방, 소득수준향상에 따른 소비급화, 경쟁력상실 품목의 저가제품 수입급증 등으로 올해에도 20%대의 높은 신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간 수입증가율은 두자리수인 11.4%에 달할 전망이다.
- 내년중에는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올해보다 높은 성장을 달성하고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주종 수출상품의 가격하락세가 진정되는 한편, 하반기에는 엔화의 약세가 진정되는 가운데 원화절하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증가율은 올해보다 다소 높아진 9.3%로 전망됨.
- 국내경기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자본재 뿐만 아니라 소비재의 수입도 신장세가 둔화됨으로써 내년중 수입은 올해보다 낮은 7.9%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금리>

- 올 1/4분기 중 다소 안정세를 보였던 시중 실세금리는 수출 및 내수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2/4분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의 투자위축이 심화되는 내년 중에는 다소

낮아져 12%내외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4/4분기 또는 연말에는 다시 상승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 금년 4월 월평균 회사채수익률은 11.0%, 그리고 콜금리는 9.5%의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음. 이후 시중금리는 다소 기복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 12.5%내외에 달하고 있음.
-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고 지급준비율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첫째, 최근의 수출 및 내수부진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운전자금수요가 증가하였음. 현재 해외부문은 자본유입확대에 따라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민간신용부진이 주요 통화공급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둘째, 신탁제도개편에 따라 제2금융권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 신탁제도개편이후 신탁자금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은행, 신탁계정 및 투신사의 자금운용규모가 축소되었고 이와 더불어 증시침체로 인한 증권사의 콜자금차입 및 CP발행이 확대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제1,2금융권간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제2금융권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

셋째,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금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함으로써 자금수요가 간헐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시중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

- 내년중에는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의 운전자금수요가 다소 진정되고 투자자금수요도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올해보다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어서 0.5%p 내외의 하락이 예상됨.
- 금년 4월의 지급준비율 인하효과가 가시화되고 올 하반기의 신 금융상품도입에 따른

## 동향과 전망

시중 유동자금 흡수의 효과가 있을 경우, 금리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며 외국인투자 자유화도 간접적인 금리하락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앞서 지적한 제2금융권 자금부족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정책당국의 통화환수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어 불필요한 자금에 대한 가수요가 커질 경우, 현재의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음.
- 반면에 내년중 금리하락요인으로는 지급준비율의 추가하락에 따른 은행금융기관의 자금여력확대효과, 외국인주식투자한도의 추가확대와 외국인의 부보중 중소기업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확대, 해외증권발행의 허용, 상업차관 및 현금차관 대상기업의 확대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 하락요인이 제대로 작용할 경우, 11%대의 시중금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금년과 같이 지준율인하로 인한 통화공급요인을 통안증권발행 등의 방법으로 환수할 경우, 또는 예정된 자본자유화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금리하락효과는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임.

### <환율>

- 지난해 8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원/달러 환율은 올해 말까지는 840-850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한 후 내년 상반기중에도 다소 절하압력이 있으나 하반기중 미국 달러화 강세의 이완 가능성, 국내경기하강속도 완화에 따른 외화유입증가와 수출회복세 가능성 등으로 97년 4/4분기중 원/달러환율은 절상추세를 나타내어 830원/\$수준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 자본시장개방에 따른 외화유입증가로 94년초이래 절상추세가 지속됨으로써 지난 해 7월말 756원/\$을 기록한 뒤, 절하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12월중 절하속도가 빨라져 840

원/\$대를 유지하고 있음.

- 절하추이 지속의 원인은 지난해 중반이후 국제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의 강세, 우리의 경상수지적자확대에 따른 달러화 결제수요의 증가, 국내경기하강과 증시악화에 따른 외화유입의 둔화 그리고 원화약세를 예상한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달러매입과 원화매각 등임.
- 내년중에도 경상수지적자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상반기까지는 엔화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840원/\$보다 절하될 압력이 있으나, 하반기 이후 달러강세/엔화약세가 진정되고 국내경기회복이 가까워짐에 따라 외화유입이 다소 증가함에 따라 연말환율은 830원/\$, 연평균환율은 올해보다 약 4%절하된 835원/\$내외로 예상됨.

### <물가>

- 물가는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화 정책에 힘입어 올해 연평균 물가상승율은 5.0%내외 (연말기준 4.7%)로 예상되며 내년중에는 경기후퇴로 수요부문에서의 물가압력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나 금년 12월중 인상되거나 내년으로 이월되는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압력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올해보다 다소 낮은 연간 4.8%의 상승율이 전망됨.
- 금년중 물가압력이 높았던 것은 지난해까지의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부문의 물가압력이 올해로 이월된 데다가 높은 임금상승과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고 원화절하추세도 비용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임.
- 작년 이후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의 상승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는 집세와 함께 부동산가격상승이 연계될 경우, 물가불안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동향과 전망

- 또한 80년에 하락세를 보인 에너지가격은 90년대에 들어서도 한자리수의 안정적인 상승추이를 보였으나 올해에는 22.3%나 상승하여 금년물가상승의 주역으로 작용하였음. 올해의 경우, 에너지물가를 제외하면 11월까지 소비자물가는 1.1%상승에 그쳤음.

〈 표 2 〉 국내 에너지가격 추이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1-11월)
에너지가격상승율(%)	-1.6	4.0	6.3	4.4	0.1	5.1	22.3

자료 : 한국은행

- 전반적으로는 내년중 물가는 경기하강과 임금상승둔화 그리고 민간소비지출둔화 등이 작용함으로써 수요부문의 상승압력은 낮아질 전망이나 현재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외에 12월의 대통령선거 등의 영향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동결되었던 의료보험수가(가중치 26/1000), 고속도로 통행료, 올해 13%정도가 올랐던 상하수도료와 쓰레기 봉투값, 전기가스요금(22/1000), 각급 학교 수업료 등 각종 공공요금이 내년초 인상 대기중임. 이중 이미 대학등록금은 인상이 결정되었으며, 의보수가와 상하수도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고속도로요금은 물가에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연초인상이 예정됨. 또한 12/14일 휘발유교통세 인상에 따른 1월중 소비자물가상승율 기여도가 1%내외에 달해 앞에 열거한 공공요금상승마저 병행된다면 90년대 들어 가장 높은 1월물가상승율이 전망됨(91년-96년중 1월물가상승율은 1.0%포인트임).

## 2. 민간소비

### (1) 최근동향

■ 지속적인 경기후퇴와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른 소득증가 둔화로 96년 3/4분기중 민간소비는 6.0%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95년 1/4분기(8.8%)를 정점으로 한 둔화추세가 계속됨.

- 소비형태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 및 교육, 문화, 오락 등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크게 둔화되었음.
- 4/4분기중 민간소비는 6.2%의 증가율을 나타내, 96년중 6.6%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GDP의 증가율 6.9%보다 다소 낮은 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표 3 〉 최근 민간소비와 형태별 가계소비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5				1996		
	2/4	3/4	4/4	연간	1/4	2/4	3/4
민간소비	8.1	8.0	7.1	7.9	7.5	7.1	6.0
가계소비	8.1	8.1	7.1	8.0	7.6	7.2	6.1
내구재	9.5	11.4	9.9	11.6	9.4	11.4	6.7
준내구재	9.9	10.8	7.1	9.3	6.5	7.0	7.8
비내구재	7.0	5.5	5.1	6.0	5.5	4.2	4.6
서비스	9.1	8.5	8.5	8.4	7.7	7.1	5.9

자료 : 한국은행

- 3/4분기중 내수용 국산소비재 출하가 부진하였으나, 소비재 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

## 동향과 전망

하고 소비판매도 꾸준한 신장세를 나타내었음.

- 소비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내수용 소비재 출하가 1.9%의 증가에 그쳐 소비지출이 본격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97년 중에도 지속될 것임을 나타냄.

〈 표 4 〉 소비관련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도소매판매액	8.0	8.7	7.8	7.3	7.4	7.8	8.3	7.0	6.6
도  매	9.8	7.9	7.0	6.3	6.2	6.9	6.9	4.9	4.9
소  매	6.1	9.4	8.5	8.1	8.7	8.6	9.8	9.5	8.6
내수용소비재출하	9.2	12.9	6.6	4.4	6.2	7.4	5.3	7.4	1.9
내구재	12.3	17.4	5.5	10.4	9.3	10.7	6.2	11.2	0.9
비내구재	7.7	10.3	7.2	1.4	4.6	5.7	4.9	5.3	2.4

자료 : 통계청

### (2) 97년 연간전망

- 97년중 민간소비는 경기하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96년 보나도 낮은 5.7%의 신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임금상승률의 둔화로 소득증가율이 낮아지고, 또한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자산소득의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 97년중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증가 우려도 소비증가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 3. 고정투자

#### (1) 최근동향

##### <설비투자>

- 96년 3/4분기중 설비투자는 8.7%의 비교적 큰 성장세를 보였음.
- 기계류 투자는 산업용 기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13.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운수장비 투자는 버스 및 항공기에 대한 투자가 호조를 보였으나, 선박 및 트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 3.5% 감소하였음.

〈 표 5 〉 최근 설비투자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5				1996		
	2/4	3/4	4/4	연간	1/4	2/4	3/4
설비투자	18.0	22.2	1.5	15.9	4.3	3.5	8.7
기계류	28.4	22.0	8.8	22.6	8.7	3.4	13.8
운수장비	-2.7	23.2	-11.1	2.4	-8.5	3.6	-3.5

자료 : 한국은행

-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대대적인 투자증대에 따른 공급능력 확충과 수출부진에 따른 경기하강으로 설비투자는 4/4분기중 6.4% 증가율에 그쳐, 96년에 5.7%의 낮은 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내수용 기계설비 출하는 전 분기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는 신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음.



## 동향과 전망

〈 표 6 〉 설비투자 관련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연간	1/4	2/4	3/4	4/4	1/4	2/4	3/4
국내기계수주	26.9	45.4	26.6	0.9	-1.5	15.8	9.7	9.2
기계류수입허가	73.6	59.4	79.8	1.7	-7.2	28.2	1.3	18.3
기계류수입액	37.6	47.1	34.8	22.9	10.8	27.0	16.0	16.2
기계류내수출하	22.0	28.3	30.0	21.1	8.0	21.4	9.0	8.4

자료 : 통계청

### <건설투자>

- 96년 3/4분기중 건설투자는 항만, 공항,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공장,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건설이 감소하여 4.7% 증가에 머물렀음.
- 3/4분기중에는 4.7%의 성장율을 기록하여 96년중 5.9%의 증가율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표 7 〉 최근 건설투자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건설투자	4.5	7.6	8.8	10.8	11.7	9.9	10.5	4.9	4.7
건물건설	2.2	5.3	11.3	15.3	9.9	10.5	5.8	-1.8	-1.0
기타건설	8.1	14.1	4.9	4.2	13.6	9.0	22.5	16.0	13.8

자료 : 한국은행

- 국내건설 공사수주는 민간 제조업 부문의 호조로 3/4분기중 18.3% 증가하였음.
- 건축허가 면적은 전분기의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하였음.

〈 표 8 〉 건설투자 관련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국내 건설수주	18.5	14.3	21.9	29.8	48.7	21.2	47.4	13.1	18.3
공공	17.0	27.7	-8.9	51.9	14.6	17.6	156.9	43.6	14.2
건축허가면적	-1.3	16.2	35.9	-25.6	-12.2	1.0	-7.4	-16.7	27.6

자료 : 통계청

## (2) 연간전망

### <설비투자>

- 97년중에도 내수위축과 수출부진으로 설비투자 부진세가 지속되어 3.3%의 낮은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지난 몇년간 생산능력이 크게 확충되어 공급능력이 이미 확대되었기 때문임.
- 재고누적 및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임.

### <건설투자>

-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시작, 대규모 국제대회 준비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진세가 지속되어 97년중 3.9%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동향과 전망

### 4. 대외거래

#### (1) 최근동향

■ 수출은 10월중 3.2%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1~10월 중 수출도 4.6%의 낮은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

- 이는 반도체 등 수출주종품목의 가격하락에 따른 대선진국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중화학공업제품의 1~10월중 수출증가율 2.2%에 그침.
- 경공업제품의 수출도 1~10월중 7.6% 증가에 그쳐 95년 동기간의 16.3%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 반도체, 철강, 화장품 등의 수출대상국인 선진국에 대한 수출도 급격히 감소하였고 1~10월중 대선진국 수출은 6.4% 감소하였음.
- 개도국에 대한 수출은 10월중 24.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전년동기의 27.8% 보다는 낮은 수준을 시현하였음.

〈 표 9 〉 최근 수출동향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비(%)

	1995		1996			
	10월	1~10월	9월	10월	1~10월	
전체수출	115.2 (30.0)	1,108.4 (38.9)	100.9 (-8.1)	118.9 (3.2)	1,065.1 (4.6)	
품목별	중화학	82.4 (36.3)	709.5 (42.0)	67.4 (-14.3)	83.2 (0.9)	724.8 (2.2)
	경공업	25.2 (16.3)	244.8 (16.3)	25.9 (5.5)	26.3 (4.6)	263.5 (7.6)
지역별	대선진국	59.9 (32.0)	508.2 (30.7)	43.0 (-19.3)	49.9 (-16.8)	475.7 (-6.4)
	대개도국	55.3 (27.8)	510.2 (37.1)	57.9 (2.4)	68.8 (24.3)	589.0 (15.4)

자료 : 통상산업부

- 수입은 10월중 경기하강국면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인 14.8%의 증가율을 보였음.
- 제조업 생산시설 자본재의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정보·통신 등 서비스 관련 자본재의 수입증가세가 높았기 때문임.
- 소비수요의 고급화, 시장개방확대 등으로 소비재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0월중 26.8% 증가하였음.
- 국산품의 가격경쟁력 악화로 의류, 신발 등의 저가품 수입도 크게 증가하여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0월중 26.1% 증가를 기록함.

〈 표 10 〉 최근 수입동향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비(%)

		1995		1996		
		10월	1~10월	9월	10월	1~10월
전체수입		117.3 (29.0)	1,114.4 (38.6)	113.9 (-1.9)	134.6 (14.8)	1,232.9 (10.6)
품목별	원 자 재	60.1 (35.7)	555.5 (34.8)	55.2 (-3.8)	64.7 (7.7)	611.8 (10.1)
	자 본 재	44.5 (21.8)	443.0 (37.8)	44.9 (-4.0)	53.8 (21.0)	480.9 (8.6)
	소 비 재	12.7 (24.5)	115.9 (31.3)	13.8 (15.0)	16.1 (26.8)	140.2 (21.0)
지역별	대선진국	79.9 (29.2)	757.9 (36.2)	74.1 (-2.8)	87.5 (9.5)	814.3 (7.4)
	대개도국	37.4 (28.6)	356.5 (34.5)	39.8 (-0.3)	47.1 (26.1)	418.6 (17.4)

자료 : 통상산업부

- 10월중 경상수지는 무역수지가 수입증가로 크게 악화된데다 무역외 수지도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24억 달러의 적자를 시현하였음.
- 무역수지는 수출이 선박·자동차 등 일부품목의 호조로 증가세를 반전하였으나 자본재

## 동향과 전망

와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17.2억 달러의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함.

- 무역외수지는 광고비, 기술용역대가 등의 무역외지급이 크게 증가하여 6.3억 달러의 적자를 시현함.

### (2) 향후 전망

- 97년중 수출은 세계경제성장과 금년의 원화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물량증가세는 늘어날 전망이나 수출단가악화의 회복지연으로 수출총액의 증가율은 9.3%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 97년중 수입은 경기하강국면의 지속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7.9%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97년중 수입총액은 1,5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97년중 무역수지는 수출증가율이 다소 높고 수입증가율이 낮아짐에 따라 금년보다 다소 개선된 129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됨. 결국 97년중 경상수지도 금년보다 20억 달러 가량 개선된 195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됨.

〈 표 11 〉 최근 국제수지 동향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비(%)

	1995		1996		
	10월	1~10월	9월	10월	1~10월
경상수지	-3.4	-84.2	-14.1	-24.1	-195.0
무역수지	-0.1	-51.2	-8.1	-17.2	-125.8
수출증가율	30.7	34.4	-5.9	1.5	5.0
수입증가율	27.3	35.6	-1.0	16.9	11.9
무역외수지	-2.9	-28.8	-5.1	-6.3	-60.9
이전수지	-0.5	-4.2	-0.9	-0.7	-8.3
자본수지	3.0	103.0	-0.6	11.3	145.1

자료 : 한국은행

## 5. 원화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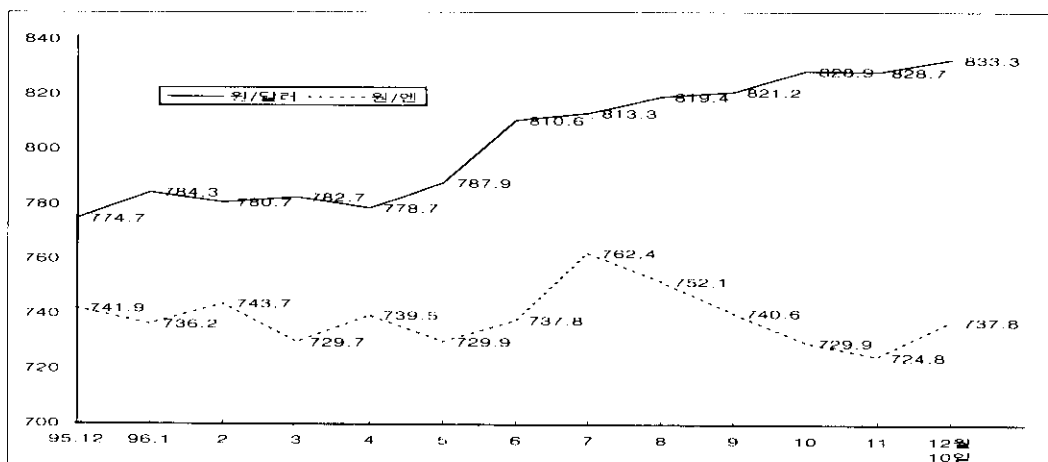
### (1) 최근동향

- 6월 이후 820~830선을 유지해오던 대미달러 환율이 12월 들어 840~850선으로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음. 이는 경상수지 적자폭이 96년중 220억 달러로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데다 자본수지 흑자도 감소세를 나타냈기 때문임.

### (2) 향후전망

- 금년말까지의 대미달러환율은 외환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845원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97년중 대미달러환율은 경상수지적자폭이 다소 줄어들며 힘입어 830~840원선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97년 상반기에는 절하세가 유지되겠지만 하반기에는 절상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됨.

〈 그림 1 〉 최근 환율추이



## 동향과 전망

### 6. 통화금융

#### (1) 최근동향

- 9월중 총통화(M<sup>2</sup>)평잔 증가율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 17.5%로써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M<sup>2</sup>+CD 평잔증가율은 전월(15.75%)에 비해 1%정도 높은 16.7%를 나타내고 있음

〈 표 12 〉 부문별 총통화(M<sup>2</sup>)지표 추이

단위 : 억원, %

	1996		
	7월	8월	9월
정부부문	17,422	-43,186	13,865
민간부문	33,598	76,664	36,407
해외부문	15,199	-26,309	-15,839
기 타	-22,871	-6,467	-12,643
총통화(M <sup>2</sup> )	43,348	702	21,790

자료 : 한국은행

주 : 말잔기준

#### ■ 부문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정부부문은 8월중 4조 3천억여원이 환수되었으나 7월과 9월에는 각각 1조 7천억여원과 1조 3천억여원이 공급되었음.
- 민간부문은 9월중 3조 6천억여원이 공급되었음.
- 해외부문은 1조 5천억여원이 환수되었음.
- 기타부문에서는 1조2천억여원이 환수되었음.

〈 표 13 〉 최근의 총통화 동향

단위 : 억원, %

	1996			1995
	7월	8월	9월	9월
평잔액	1,595,212	1,607,740	1,653,296	1,406,637
(기간중 증감액)	31,207	12,528	44,211	36,923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17.1	17.4	17.5	13.9
말잔액	1,598,240	1,620,030	1,700,653	1,397,681
(기간중 증감액)	703	21,790	77,569	15,784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17.0	17.2	21.7	13.9
M <sup>2</sup> +CD평균증가율	15.88	15.75	16.7	15.71

자료 : 한국은행

(2) 4/4분기 및 연간전망(96/97)

-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총통화공급은 자금경색이나 금리상승을 우려하여 17~18%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97년도의 통화공급은 명목성장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통화 공급은 96년에 비해 1~2%정도 낮은 수준에서 공급될 전망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의 위축 등으로 인해 자금수요가 크게 줄어들 소지가 있어 자금경색이나 금리급등의 금융불안은 없어 보인다.



## 동향과 전망

### 7. 금리 및 자금사정

#### (1) 최근동향

- 3/4분기 중 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금리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
- 8월중의 서울지역 어음부도율은 0.09%로 전월(0.08%)보다 0.01% 올랐으나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서울보다 큰 0.14%를 유지하고 있음.
- 3/4분기중 직접금융자금조달의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6천억여원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문별 구성을 살펴보면 회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은 5조 9천억여원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으로 나타났음.

〈 표 14 〉 기업의 직접금융조달

(단위 : 백만원)

	1996	1995	변동폭
	7월~9월	7월~9월	7월~9월
기업공개	117,580	203,834	-86,254
유상증자	1,513,779	812,088	701,683
회사채발행	5,947,655	5,934,600	13,055
전체	7,582,810	6,954,229	628,581

자료 : 한국은행

- 금리는 7월말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보임.
- 자금시장의 불안함을 반영하여 금리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음. 특히 7월말 이후 콜금리의 대폭 상승을 포함하여 다른 두 금리도 다른 월에 비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음.
- 단기금리인 콜금리는 7월말 대폭 상승하였고 8월말에는 15.39%의 상승을 보여 불안정

한 모습을 보여주다 9월말에는 13.91%로 약간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음.

- 회사채금리 역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8월 이후에는 12%대에서 머무르고 있음.

〈 표 15 〉 4/4분기 금리동향

단위 : 기말, %

	1996						
	6월	7월	8월	9월	변동폭		
	A	B	C	D	B-A	C-B	D-C
물금리	12.37	12.94	15.39	13.91	0.57	2.45	-1.48
회사채유통수익률	11.55	11.91	12.34	12.18	0.36	0.43	-0.16
CD	12.18	12.84	14.79	14.30	0.66	1.95	-0.49

자료 : 한국은행

주 : 1) 물금리 : 1日物 기준

2) 회사채유통수익률 : 3年滿期 保證附社債 기준

3) CD유통수익률 : 91日物 기준

## (2) 97년 1/4분기 및 연간전망

- 높은 수준의 재고증가율, 무역외수지의 적자지속, 수출부진, 경기침체 등이 자금시장을 당분간 불안하게 할 것으로 보여짐.
- 통화의 유출이 국내자금시장에 유동성 부족현상을 일으키고 수출부진 등으로 내부유보가 부족해진 기업들의 운전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금리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설비투자 축소가 97년도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는 96년도 4/4분기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 동향과 전망

- 또한 정부의 고금리에 대한 정책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통화의 신축적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97년 1/4분기의 금리는 12%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97년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금리는 97년도 1/4분기에 비해 조금 낮은 11~1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제 2 장

해외경제

1. 국제환율

〈 표 16 〉 국제환율 추이

	1995	1996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6
\$/SDR	1.487	1.459	1.445	1.453	1.443	1.466	1.455	1.439	1.446	1.443	1.444
¥/\$	102.90	102.14	107.52	108.96	109.92	107.13	108.38	111.37	114.05	114.71	112.03
DM/\$	1.434	1.481	1.525	1.496	1.523	1.475	1.488	1.525	1.518	1.555	1.538
\$/€	1.551	1.537	1.535	1.559	1.552	1.555	1.557	1.565	1.627	1.681	1.642

주 : 각국의 현지환율, 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연합뉴스

- 9월 말 미 달러화는 독일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 일본의 금융완화기조 지속전망 등으로 마르크화와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였음. 그러나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영국의 경기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약세를 보였음.
- 10월 중 미 달러화는 EMU 출범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지속됨에 따라 마르크화에

---

## 동향과 전망

대해 강세를 보였음. 그러나 최근 독일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독일 내에 확산되면서 10월 말 미 달러화는 마르크화에 대해서 약세로 돌아섬.

마르크화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금융긴축 가능성과 경제호조 지속 등으로 미 달러화는 파운드화에 대해서도 10월 중 약세를 보였음.

10월 초 일본이 금융긴축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엔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던 미 달러화는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감소와 금융완화정책이 지속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말에는 엔화에 대해 강세로 돌아섬.

- 11월 중 미 달러화는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의 통화에 대하여 약세를 보였음. 11월 7일 일본 대장성 관리의 엔화 강세 용인 발언과 대부분의 EU 국가가 금년중에 EMU 가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발표가 이러한 약세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또한 영국의 경기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불안 조짐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이 증대되었고 독일도 경기회복과 통화공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인하 가능성이 감소되었음.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의 확대도 미 달러화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미 달러화는 엔화강세를 시사하는 일본 총재의 발언과 일본 경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엔화에 대해 소폭의 약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 국제금리

〈 표 17 〉 국제금리 추이

		1995	1996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10
미국	재할인율	5.25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프라임레이트	8.7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T/B(90일)	4.93	4.93	5.02	5.07	5.03	5.17	5.14	4.90	5.01	4.95	4.83
	T/B(30년)	5.95	6.39	6.93	7.00	6.90	6.97	7.12	6.92	6.64	5.95	6.49
일본	재할인율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프라임레이트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독일	재할인율	3.0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프라임레이트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유로금리	유로달러	5.63	5.35	5.52	5.50	5.56	5.69	5.53	5.63	5.50	5.63	5.53
	유로엔	0.63	0.67	0.63	0.62	0.63	0.75	0.59	0.53	0.53	0.50	0.47
	유로마르크	3.69	3.35	3.25	3.24	3.38	3.38	3.16	3.19	3.19	3.81	3.25

주 : 미국과 일본의 프라임레이트는 단기이고 독일은 롬바르트금리임. 원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연합뉴스

- 9월 24일 미 연준은 불가안정 속에 하반기중 경제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RM)회의에서 재할인율과 Federal Funds 목표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함. 또한 307.5억 달러의 미 정부채 공모가 무난히 종료됨에 따라 채권 가격이 상승하였음. 이상의 요인으로 9월말 미국의 장단기 금리는 모두 하락하였음.

---

## 동향과 전망

- 10월초 미국의 시장금리는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금리인상 가능성 및 채권시장에서의 10억 달러 규모의 사채발행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장단기 금리가 모두 상승하였음. 그러나 물가안정세 지속 및 경기둔화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의 발표로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후퇴하면서 장단기 금리는 다시 하락세를 보였으며 10월 말까지 이러한 하락기조가 계속 되었음.
-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된 반면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하여 현재의 미국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 초 미국의 장기 금리는 하락하였고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라 단기 금리도 보합세를 보였음. 또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유보 결정과 물가 안정세의 지속, 경기둔화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의 발표 등도 장단기 금리의 하향안정세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11월 말 재정수지의 악화 및 회사채 공급의 증가 등의 상승 요인과 이상의 하락요인들이 엇갈리는 가운데에서도 장단기 금리는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였음.
- 미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 금리는 그 변동폭이 크지 않은 하향안정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3. 국제원자재가격

〈 표 18 〉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 추이

	1995	1996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6
브렌트유 (현물, 달러/배럴)	18.65	18.51	18.65	21.10	19.28	19.19	20.98	23.15	22.80	23.17	24.88
WTI유 (현물, 달러/배럴)	19.60	19.6	20.12	22.33	20.95	20.45	22.25	24.40	23.35	23.75	25.65
두바이유 (현물, 달러/배럴)	17.78	16.5	17.0	19.12	17.65	17.53	19.23	21.00	21.50	21.11	22.45
로이터상품가격지수	2,092.2	2,148.3	2,088.2	1,950.1	2,009.5	1,943.0	1,953.7	1,953.7	1,868.2	1,865.5	1,844.6
소맥 (시카고, 센트/부셸)	512.3	508.9	505.4	445.7	478.5	440.0	448.5	448.5	371.3	396.0	391.0
옥수수 (시카고, 센트/부셸)	369.3	389.9	461.2	365.1	516.3	354.3	370.5	370.5	226.0	270.0	267.3
동 (런던, 파운드/MT)	2,844.5	2,550.1	2,381.7	2,064.5	2,047.5	1,988.5	2,102.5	2,102.5	2,004.5	2,470.5	2,276.5
알미늄 (런던, 파운드/MT)	1,679.5	1,591.8	1,550.8	1,469.5	1,496.0	1,451.5	1,478.5	1,478.5	1,416.5	1,509.5	1,491.0

주 : 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무역협회 “일간무역”

#### (1) 원유가격 동향

- WTI 현물유가는 미국과 이란간의 관계악화로 중동지역의 긴장이 지속되고 미국내의 원유재고가 감소하자 9월말 소폭상승세를 보였음.
- 9월 말 상승세를 보이던 WTI 현물유가는 10월 초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으



---

## 동향과 전망

나 난방유 재고부족의 완화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음. 그러나 이라크 위기가 재발될 조짐을 보이고 금년 겨울이 예년보다 추울 것이라는 기상 전망이 나오면서 10월 중에 다시 한번 걸프전 이후 최고 수준인 배럴당 25.8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같은 상승세는 최근 원유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난방유 재고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오고 이라크내 쿠르드족 분쟁이 해결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어 10월 말에는 배럴당 23 달러 수준에 머물렀음.

- WTI 현물유가는 11월 말 배럴당 24.4 달러 수준으로 전월에 비하여 상승세를 보였음. 금년 겨울의 한파 예상과 베네주엘라 석유노조의 파업 경고, 노사 협상 지연 소식 등이 WTI 현물유가의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이러한 추세는 11월 말 미 북동부 지역의 한파에 따른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와 베네주엘라 국영 석유회사의 노사 협상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그 상승세를 유지하였음.
- 이라크의 부분적인 원유 수출 재개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재고가 감소함에 따라 WTI 현물유가는 연말까지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2) 비철금속 및 곡물가격 동향

- 9월말 옥수수 가격은 기상호조로 인한 수확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하향안정세를 보였음.  
동 가격은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재고감소로 인하여 소폭 상승세를 보였음.
- 10월 중 곡물 가격은 EU가 소맥수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늘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겨울밀 파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미 농무부의 발표와 더불어 옥수수의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상회할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밀과 옥수수 가격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

였음.

한편, 동 가격은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재고감소로 인하여 10월 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국의 주택건설 부진 및 산업생산 둔화 등으로 인한 수요감소가 예상되면서 한때 하락세를 보이기도 하였음.

- 소맥가격은 11월 초 터키의 소맥 수입 확대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며 재고가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미 농무부의 발표와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공급물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맥가격의 상승세는 11월말까지 계속되었음.  
동 가격 또한 칠레 동 광산의 파업 소식과 이에 따른 투자 은행들의 투기적 매입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지속적인 동 재고의 감소로 11월말까지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졌음.
- 겨울철 작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소맥가격은 연말까지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동 가격 또한 칠레의 동 생산의 증가와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제 3 장

## 최근 경제의 평가와 경제운영방향

### 1. 최근 경제추이의 판단 및 향후 전망

- 지난 해 4/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GDP)이 6%대로 떨어진 이후 3/4분기 들어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반전되고 투자와 소비 등 내수도 둔화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우리 경제는 올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경기하강국면을 경험하고 있음. 더욱이 9월중 110엔/달러대로 절하된 엔화약세는 하반기 이후 97년중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대내적으로도 이미 발표된 “9.3종합대책”이나 후속대책에도 국내수요의 부양을 통한 거시정책이 고려되지 않고 95년 4/4분기 이후의 저성장추이가 8분기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은 하반기중 6.5%내외로 낮아져 96년중 연간 성장률이 6.9%내외 그리고 97년에는 6.3%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하반기중 미국경제의 고성장과 완만한 일본경기회복세 등으로 엔화약세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임. 여기에 국제유가의 강세와 건조한 수입증가세가 겹침으로써 96년중 경상수지적자가 GDP의 4.5%에 접근하고 물가압력이 높아지는 등 성장둔화와 함께 대내외불균형이 보다 악화될 전망이다.
- 전반적인 세계경제여건이 성장면에서나 교역, 금융면에서 안정적인 확장국면을 지속하고 4월 이후 원화절하추세가 12월중 다소 빨라지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엔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냄에 따라 95년에 비하여 국제시황이 좋지 않은 조선, 자동

## 동향과 전망

차, 전자, 석유화학 등의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내년 1/4분기 중에도 수출증가세의 현저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12월중 다소 빠른 절하추세를 보이고 있는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은 절하폭이 수출가격경쟁력을 보전할만큼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며 절하에 따른 제한적인 효과도 2-3분기의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4/4분기 이후에나 무역수지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반면에 설비투자의 둔화와 원화의 절하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둔화추이를 보임으로써 큰 폭의 대외적자가 예상됨.

- 대외적으로 볼 때, 일부 주력품목(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의 수출이 반도체가격의 하락과 중국경제의 긴축에 따른 수입감소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함. 또한 예상보다 지속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는 엔화약세와 원유가격강세 등은 수출신장세를 제약하고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외에 WTO체제의 본격화와 OECD가입추진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폭의 확대 등도 고려할 수 있음. 이들 요인들은 농축수산물의 수입확대와 외자유입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국제수지면에서 국내경제운용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됨.
- 대내적으로 9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높아지고 있는 국내물가압력과 제조업 신규고용의 감소추이 및 경상수지적자폭의 확대 등의 거시경제적 배경, 향후 노동시장의 준거가 될 “노동관련법”의 개정방향, 그리고 체제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북한문제 등의 경제외적 부담요인이 적지 않음. 이 가운데 유통시장의 개방, 수입품에 대한 거부감의 퇴조 등 실질적인 수입자유화의 진전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는 완성소비재의 수입확대 추세, 빠른 구조조정과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경기양극화현상과 매출감소와 채산성악화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 등도 예상되는 과제들임.
- 반면 최근 소비자물가의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으나 지난 82년 이래 국내생산자물가가 95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5%미만에서 안정되어 왔으며 93년 이후의 경기상승기에서

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시경제를 운영한 결과 상반기중에도 생산자 물가와 금리수준은 지난해에 비하여 안정적 추이를 보였음. 재정 또한 거의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등 거시정책환경은 다소 여유가 있어 앞에서 열거한 정책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한 유연한 거시경제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9.3종합대책”과 후속 “경쟁력 10% 올리기”시책에 의하면, 신경제팀의 출범이후 경제운영을 단기적이고 거시적인 조정보다는 중장기적이고 미시적인 조정수단에 의존하기로 함으로써 획기적인 외부환경변화가 없는 한 95년 4분기 이후의 경기하강국면이 과거 평균경기수축기간인 6분기를 넘어 8분기 이상으로 중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85년 플라자합의 이후 국제환율의 변화와 인위적인 주택건설의 확대 그리고 “6.29선언” 이후의 경제민주화과정에서 국내 임금, 물가, 토지를 비롯한 생산요소가 격변수들의 수준이 급격히 높아짐으로써 경기의 자율반등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요약컨대, 향후 우리경제는 본격적인 경기하강국면에서 적정성장률의 달성과 경상수지 적자의 축소라는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나가되,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개방과정에서 국내금리와 물가를 선진국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 그리고 경기둔화과정 속에서 경기양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촉진시켜 나가야 하는 등 정책운영상의 부담요인을 안고 있음.

## 2. 예상되는 정책과제

### (1) 경상수지 적자문제

- 외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원리금상환부담도 급증추세에 있으며 외채증가에 따라 해

## 동향과 전망

외신임도 지하에 따른 차입금리조건의 악화가 예상된다.

〈 표 19 〉 외채 및 원리금 상환부담

	1996	1995
총 외 채	970억불	784억불
총외채 / GNP	20%내외	17.4%
원리금상환합계	101억불	82억불

주 : 9월말 한국은행 잠정치

- 소비재의 수입증가율이 전체 수입증가율의 두배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하강으로 자본재 등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의 경우, 비탄력적인 수입수요에 따라 수입증가가 수출증가보다 높아 무역수지적자폭의 축소는 제한적인 전망이다. 특히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에너지류는 최근 원유가의 상승으로 10월까지의 원유수입은 5억 8,310만불로 전년동기비 14.0%가 증가하는 등 구조적 적자요인화 하고 있음.

〈 표 20 〉 수입증가요인(96년 1-9월)

		총수입증 비중	수입증가기여도
총수입	1,098억2,280만불( 10.1%)	100.0%	100.0%
금피 등	38억5,450만불(120.4%)	3.5%	20.8%
원유	98억3,770만불( 21.7%)	9.0%	17.3%
반도체	75억5,450만불( 13.6%)	6.9%	8.9%
컴퓨터	29억630만불( 20.5%)	2.6%	4.9%
이상 4품목 합계		22.0%	51.9%

자료 : 재정경제원

- 무역외수지부문에서도 여행수지 악화 추세 및 해외기술의존에 따른 로열티 지급액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OECD가입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를 GNP의 0.7%수준으로 현재수준보다 0.2%p정도 높여야 하는 등 국제기구와 관련한 지급의 증가에 따라 적자 확대가 예상된다.
- OECD가입에 따른 분담금(1.7%할당, 370만불)을 97년부터 지급해야 하며 BIS신규가입에 따른 출자금 할당(1,092만 9천 골드프랑, 약320억원), EBRD자본금 두배 증액으로 분할 출자(97년부터 8년간 1,462만 ECU, 156억원 상당) 이외에도 AfDF(아프리카개발기금) 97/98에 걸쳐 약 107억원(분납)과 IDA(국제개발협회)에 280억여원 등이 예정되어 있음.

## (2) OECD가입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와 과제

- 환경부문은 한국이 개도국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기후변화협약(FCCC)에 의한 탄소세의 도입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93년6월부터 추진중인 ISO 14000이 국제적 환경표준으로 채택되는 경우, 이의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국내산업정책의 국제적 규범에 따른 개선으로 1994년 OECD보고서는 한국의 경쟁정책이 재벌에 대한 직접적 규제에 치우쳐 기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기업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이를 감안하면, 경제력집중 완화와 공정한 상관행에 주어졌던 국내산업정책은 향후 경쟁적 시장구조의 유지 및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상호조화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임.
- 여신관리제도, 계열기업군제도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독과점



## 동향과 전망

에 대한 정책인 공정거래법 역시 현재의 사전적 규제로부터 폐해에 대한 사후적 시정 위주로 전환될 것이 요청됨.

- 또한 산업정책의 한 수단이었던 정책금융 등 금리상 우대조치들도 점진적인 종식이 불가피함.
-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복수노조허용문제, 제3자 개입 금지조항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의 손질도 시급한 과제임.

〈 표 21 〉 OECD 가입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

	업 종	주 요 파 급 효 과
제 조 업	자 동 차	-국내시장에 대한 외국기업 진출 활기 -선진국시장진입 용이
	철 강	-OECD가입에 따른 추가 효과 미미 -특수강 수입예상
	일반기계	-외국산 자본재수입급증 예상 -수출증대효과 미미
	가전제품	-무역마찰회피 등 수출확대 예상 -고급품 중심 외산 가전제품 수입 증대
건설 및 서비스	건 설	-외국건설업체 국내진출 활기 예상 -기술집약적 엔지니어링 분야 잠식 우려
	통 신	-유럽 및 일본업체 진출 활발 예상 -부가통신, 기본통신분야 잠식 우려
	금 용	-소규모 금융기관간 M&A 활발 예상 -금융산업의 전반적 구조변화 불가피

(3)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의 문제

- 96년 상반기중 임차료를 제외한 제비용요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업중사 기업의 매출액대비 경상이익률이 크게 저하됨.

〈 표 22 〉 기업경영분석(제조업)에 나타난 고비용구조

(단위 : %)

비 용 및 이 익	매출액 대비 비용
경 상 이 익 률	1.8 (4.2)
이 자 부 담 율	5.7 (5.5)
인 건 비	12.91 (12.89)
물 류 비 용	2.04 (2.01)
임 차 료	0.81 (0.74)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 한국은행, 96상반기 실적, ( )안은 95년 상반기 실적임.

참고 : 기업의 물류비용 총액은 GDP의 15.7%(94), 매출액의 14%

- 명목임금상승률이나 노동생산성을 제외한 단위노동비용 증가면에서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또는 1%대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데에 비하여 한국은 5%수준으로 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표 23 〉 임금 및 노동생산성 상승률 동향(87~95년 평균)

(단위 : %)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대 만	싱 가포 르
임금상승률(A) <sup>1)</sup>	16.1	2.7	2.8	6.5	10.4	9.4
노동생산성(B) <sup>2)</sup>	11.1	4.6	2.9	6.6	8.6	9.3
A - B	5.0	-1.9	-0.1	-0.1	1.8	0.1

주 : 영국, 대만, 싱가포르는 87~94년 기준

1) 제조업 기준

2) 국민경제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증가율)

## 동향과 전망

### (4) 높은 금융비용 및 물류비용

- 높은 시장금리와 부채비율로 인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율은 경쟁국의 3배이상에 달하고 있음. 특히 시장실세금리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2배에서 4배에 달함으로써 기업의 고비용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물류비용부담도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더구나 이같은 물류비용은 최근들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비용부담으로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 표 24 〉 금융비용 및 물류비용부담의 국제비교

(단위 : %)

	한 국	미 국	일 본	대 만
시장금리(95년 평균)	13.8	6.3	3.0	7.3
금융비용/매출액(90~95년 평균)	5.6	1.8	1.6	1.7
물류비/총매출액(94년)	16.9	7.0	11.3	-

### (5) 높은 지가

- 전국토의 토지가액총액(공시지가기준)은 95년말 현재 1,638조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5.4배에 달하고 있으며 공단분양가는 영국 원야드에 비하여 100배 이상 비싸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10배 이상 고가임.

〈 표 25 〉 국별 GDP 대비 지가총액

(단위 : 倍)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5.4	3.5	0.7	1.6	0.9

자료: 재정경제원

### (6) 높은 준조세부담

- 기업의 준조세는 KDI의 추계에 의하더라도, 기금출연금을 포함하여 모두 51종에 9조 4천억원으로 GNP의 2.7%에 달하고 있음.
- 그외에도 부과근거법은 있으나 부담율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의 통제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예결산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유효한 통제수단이 사실상 없는 각종 부담금 형태의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준조세도 적지 않음. 또한 해당 부처가 부담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도 많음.

〈 표 26 〉 공식적 준조세부담금

소 관 부 처	부담금 / 기금
통상산업부	석유수입부과금, 액화천연가스수입 부과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 기금 등 7종
노동부	고용보험료부담금 등 6건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등 5건
산업청	산지전용부담금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교통유발부담금
합 계	28종 4조 223억원(96년예산, 97년중에는 22.6%증가한 4조 9,324억원 계상)

자료: 국회 법제 예산실, "부처별 부담금현황"

### 3. 96/97년 경제운영방향

- 93년 1월을 경기저점으로 한 경기확장기간동안 엔고와 세계경제의 호전을 배경으로 균형재정과 안정적 통화공급 그리고 원화절상을 기조로 한 거시정책을 지속함으로써 경기과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5%수준에서 국내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었음. 그러나 95년 이후 엔화가치의 약세전환과 설비투자를 비롯한 국내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96년 하반기중 성장률은 6.5%, 연간 6.9%, 그리고 97년에는 6.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거시경제운영은 지나친 경기수축을 경계하면서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경기하강국면에서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고 적지 않은 물가압력이 상존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축소균형지향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운영은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경기와 성장의 급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부의 조심스런 경기관리노력이 중요하다 할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거시경제운영은 단기적으로는 내년중 예상되는 경기수축국면의 적정화를 유도하고 중기적으로 잠재성장률수준의 성장속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1) 경상수지적자의 축소

- 경상수지적자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840원/\$대에서 유지되고 있는 대미달러환율은 인위적으로 원화의 절하압력을 낮추기 보다는 경상거래용 외환수급사정을 안정적으로 반영하도록 시장여건조성에 힘씀으로써 통화정책부담을 완화하고 환율변화로 인한 가격경쟁력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경상수지가 흑자로 반전한 지난 86년 이후 10년(85-95)간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5%내외, 국내소비자물가는 5.8%가 상승함으로써 구매력에 기초한 원/달러환율은 매년 약 2%이상의 절하압력이 누적되어 왔으나 현재환율 840원/\$는 당시 환율 890원/\$에

비해 오히려 5%정도 절상된 수준임.

-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결제용 외환수요의 증대로 인한 원화가치의 절하압력을 국내자금시장에 대한 원화공급과 이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시중자금환수는 시중자금가용성의 축소와 실세금리의 하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경상수지개선이 불확실한 상황하에서는 외환의 투기적 수요에 의한 원화가치의 변동폭이 더욱 커질 수 있음.

## (2)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 확보

- 높은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의 증가과정에서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일인당 국민소득에 비하여 전반적인 임금수준은 다른 나라보다 높음. 반면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확대됨으로써 산업의 균형성장이나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어려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고학력, 고령 및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의 시행과 함께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나가는 일이 시급함.
- 현행 노동관련법상 노동시장에 대한 경직적인 규제는 거의 완전고용수준에 가까운 국내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제들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 요구됨.
- 임금상승율과 함께 임금수준의 안정이 경쟁력제고에 필수적임. 이의 달성은 생산성범위 내에서의 임금책정과 같은 지불능력 관점도 중요하나 다른 나라에 비해 취약한 사회보장 부담, 낮은 실업률하에서도 근로자의 부양가족수를 크게 하는 낮은 경제활동인구비율, 짧은 압축성장과정에서 아직 낮은 자가보유율 및 임대주택보급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비의 지출 등 생계비의 안정 관점에서의 대책이 병행될 때 중장기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접근방식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동향과 전망

### (3) 금리수준의 하향안정화

- 높은 국내금리는 그 자체로 산업의 높은 비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본자유화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경제로서는 내외금리차로 인한 거시경제적 비용을 치뤄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내외금리차의 축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기준을 인하추이와 성장둔화과정에서의 유연한 통화신용정책이 요구됨.
- 금년중 단행된 지급준비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으로 추가적인 인하를 통하여 금리하향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표 27 〉 지급준비율 추이

(단위 : %)

예 금 종 목	84년 9월	88년 12월	90년 2월	96년 4월 이후
재형저축, 근로자장기저축, 상호부금 등	2.0 <sup>2)</sup>	3.0	3.0	3.0
만기 2년이상 정기 예·적금	4.5	7.0	8.0	6.0
기타 예금 <sup>1)</sup>	4.5	10.0	11.5	9.0
평균 지급준비율	4.3	9.2	9.4	7.4

주: 1)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및 2년 미만 만기 정기예금 및 적금  
 2) 재형저축에만 支拂부과

〈 표 28 〉 주요국의 지급준비율 현황

(단위 : %)

미 국	일 본	독 일	대 만
· 거래계정	· 정기예금 : 0.05~1.2	· 저축예금 : 1.5	· 당좌예금 : 23.75
· 52백만달러 이하 : 3.0			· 보통예금 : 21.75
· 52백만달러 초과 : 10.0			
· 기 타 : 0	· 기 타 : 0.1~2.0	· 기 타 : 2.0	· 기 타 : 6.875~14.25

주 : 96.8월말 현재

- 특히 상반기중 경험한 바와 같이 투자수요둔화와 생산자물가가 안정추이를 보이는 시기에는 유연한 통화신용정책이 수요압력을 증대시켜 물가를 자극하기 보다는 유동성효과에 의한 시중실세금리의 하락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경기수축기에 추가적인 통화긴축은 실세금리의 재상승과 기업투자마인드의 급격한 위축 및 기업부도의 증가 등 실물부문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상반기중 통화증가는 성장률하락과 기업의 자금수요둔화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이었음. 신탁계정이 총통화로 편입된 것을 고려하면(신탁계정은 총통화의 1.4%로 추산됨) 통화량의 확대공급이라고 할 수 없으나 자금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공급됨으로써 금리가 안정추세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하반기 이후의 통화공급도 자금가수요의 발생에 유의하는 등 시중실세금리의 안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4) 재정의 자동적 경기조절기능 활용

- 이와 더불어 균형적 재정정책은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흑자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임. 현시점에서 재정흑자기조는 경상수지적자, 해외차입에 의한 경상적자보전이라는 악순환을 막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판단되나 경기연착륙과 사회간접자본확충 등 정부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경기중립적 균형재정이 바람직할 것임. 경기하강국면의 심화로 세수차질이 예상되는 '96년과 '97년 예산(13.4%증가)은 당초 조세부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집행시, 효율적 세출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상의 세입이나 추경예산(경기조절 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 목적)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조세행정력을 사용하기 보다는 재정고유의 경기자동조절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이 시행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 동향과 전망

〈 표 29 〉 재정규모 증가율 추이

(단위 : %)

	94년	95년	96년	97년
재정규모 증가율	16.8	15.1	14.8	13.7
(일반회계)	(15.6)	(16.7)	(16.2)	(12.8)
(장기용자)	(36.4)	(-6.7)	(-7.5)	(33.9)

주 : 예산편성 기준

- 현재 재정규모는 경직적 예산이 절반이상을 차지함으로써 탄력적인 재정운영에 부담을 안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경기수준을 조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고비용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정의 고유기능을 심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임.

〈 표 30 〉 세출예산의 구조

(단위 : 억원, %)

	96년 예산	97년 예산(안)	증가액	증가율
경직성 경비	334,556	371,612	37,056	11.1
· 인건비	78,857	85,678	6,821	8.6
· 방위비	127,360	142,705	15,345	12.0
· 교부금	120,852	132,429	11,577	9.6
· 예비비	7,487	10,800	3,313	44.3
사업비	295,110	344,408	49,338	16.7
계	629,666	716,020	86,354	13.7

주 : 일반회계와 재정부용자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임.

**(5) 준조세부담의 완화**

- 규제의 정비 및 완화를 통하여 GNP의 2.7%에 달하는 직간접적 준조세부담성격의 각종 비용을 축소함으로써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부 록

---

**경제정책정보**

---

**주요경제통계**



※ 경제정책정보 ※

일자	주무부처	주요 정책
12/13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회사 배당결정기준모형 개발보급</li> <li>- '97. 1. 1부터 활용기로 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추진한 상장회사 배당결정기준모형 개발내역</li> </ul>
12/12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금융분쟁 동향과 주요 분쟁조정사례</li> <li>- 한국은행이 '96. 1월-11월까지 금융분쟁 유형별 처리현황 및 주요 분쟁조정사례 정리</li> </ul>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부터 세계은행의 세계외채백서에서 제외</li> <li>- '97부터 세계은행에서 발행하는 세계외채백서 편제대상에서 우리나라 제외방침</li> <li>○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li> <li>'96. 12. 10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주요 수정사항</li> </ul>
12/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주변4국의 대북한정책</li> <li>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한반도 주변4국의 대북한 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이들 국가들의 대북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창재 연구위원이 집필한 정책연구보고서</li> </ul>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 DR발행 일정변경</li> <li>- 정부가 '96. 5월 중소기업상업어음의 할인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허용한 금융기관 DR발행의 후속 일정변경 내용</li> </ul>
12/7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중국)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 승인</li> <li>중국 산둥성 주독시에 소재한 100% 한국자본출자회사인 청도 안풍주철 유한공사가 국립기술품절원에 신청한 KSD 3507(배관용 탄소강관)품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 허가승인내역</li> </ul>

부록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2/5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 탄력관세 운용(안)</li> <li>- 현재 시행중인 탄력관세의 적용시한이 '96. 12. 31로 종료됨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7. 1. 1부터 시행되는 할당관세 77개 품목, 조정관세 44개 품목에 대한 탄력관세 운용(안)</li> </ul>
12/3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추진 방침</li> <li>- '96. 12. 3 정부가 확정·발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입법 추진내역</li> </ul>
12/1	대한석유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 12. 1 국내 석유류제품 최고가격 조정</li> <li>- '96. 12. 1 유가연동제에 따른 유종별 석유류제품 최고가격 조정내역</li> </ul>
11/30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제품의 안전기준 강화</li> <li>- '97. 2월부터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전기제품 안전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시험방법과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기준시험 강화방안</li> </ul>
11/29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 하반기 할당관세 수정운용(안)</li> <li>- 정부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원광석 등 10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화 방침</li> </ul>
11/28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투신사의 국내진출 기준 개정</li> <li>- '96. 12월이후 허용되는 외국투자신탁회사의 지점 및 합작사 설립과 관련한 현행 외국인투자신탁회사 국내진출 허용기준중 일부 내용개정</li> </ul>
11/26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li> <li>- '96. 11. 4 민자유치활성화대책 후속조치로 11. 27 입법예고된 민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li> </ul>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1/26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개정추진</li> <li>- OECD가입에 따른 자율화 조치일환으로 추진되는 외국투자신탁증권의 국내 판매 허용 등 증권투자신탁제도의 개정내용</li> </ul>
11/25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EC 정상회의의 경제적 의의와 향후전망</li> <li>- '96. 11. 25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4차 APEC 정상회의의 경제적 의의와 향후 APEC 전망 및 대응방향</li> </ul>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화사업 운영제도 개선방안 마련</li> <li>- 중소기업청이 '96. 5-8월 동안 총 147개 협동화사업장의 운영실태 점검하여 마련한 협동화 운영제도 개선방안 내역</li> </ul>
11/21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물회사 설립 내허가</li> <li>- 재정경제원의 은행, 보험·증권·리스 회사 등에 대한 선물회사 설립 내허가 현황</li> </ul>
11/20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발주공사 설계서 CD-ROM 표준화 저장프로그램 선정</li> <li>- 조달청이 각종 정부공사 계약발주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유인물로 작성하던 기본서류를 CD-ROM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발기로 한 공사설계서</li> </ul>
11/19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i> <li>- '96. 11. 18 상호신용금고 지점설치요건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한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사 부수업무승인 및 업무운용준칙개정(안)</li> <li>- 제7차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리스부문 규제완화 내용중 현행시설대여법 범위내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의 시행을 위해 마련한 리스사 부수업무 승인 및 업무운용준칙 개정(안) 내역</li> </ul>
11/18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보고회의</li> <li>- '96. 11. 18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회의에서 재정경제원과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자료 요약</li> </ul>

부록

일자	주부부처	주요정책
11/15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일반균형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하여 APEC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와 APEC 지역주의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11/13	재정경제원	○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방안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협의 '96. 11. 13 개최된 제7차 민영화추진대책위원회 회의시 공기업 운영효율화 및 민영화추진방안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협의내용
11/7	재정경제원	○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운영방안 - '96. 11. 7 정부의 9.3대책과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 추진을 위해 구성된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운영방안
11/6	세정경제원	○ 대선 이후 예상되는 미국의 통상정책방향 - 미국 클린턴 대통령 재집권 이후 예상되는 미국의 통상전략방향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 - 소비 억제 및 장애인을 위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내용
11/4	재정경제원	○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 대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민간참여 유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지원, 세제지원, 수익성 확보 지원, 민간제안제도 등 민간유치 활성화 대책 수립내용
11/2	재정경제원	○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 - '93 수립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추진계획이 미흡함에 따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과 병행하여 공공부분의 효율과 생산성 증대 방안 ○ OECD 가입관련 국내제도개선 추진방안 - '96. 11. 2 한승수 재정경제원장관 주제로 개최된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OECD 가입에 따른 무역·환경·노동 등 국내제도개선 추진방안 주요내용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1/1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자금중개시장의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활한 시장수급 여건 조성과 단기금리의 안정 도모를 위해 클 거래 전문중개회사 설립 등을 골자로 한 단기자금중개시장 개편 내역</li> </ul> </li> </ul>
10/30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신탁시장 개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 11월 발표된 자본시장 국제화 계획의 일환으로 '96. 12월중 시행하는 투자신탁시장 개방계획</li> </ul> </li> </ul>
10/25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금 지급준비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 10. 24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예금지급준비율 인하 주요내용</li> </ul> </li> </ul>
10/24	증권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회사 생산성 제고 추진실적 평가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 11월부터 국내 33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증권회사의 자율적인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생산성 제고, 경비절감, 경영합리화 분야에서 총 11개 지표를 선정하여 종합평가 실시</li> </ul> </li> </ul>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의 생산성 제고 유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 10. 23 재정경제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기관의 생산성 제고운동추진회의에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기관 생산성제고 유도 방안</li> </ul> </li> </ul>
10/23	보험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감독원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세부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따른 보험감독원의 경쟁력 높이기 운동 세부 추진방안</li> </ul> </li> </ul>
	한국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업은행,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세부 추진방안</li> </ul> </li> </ul>

부록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0/21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 PC뱅킹·폰뱅킹에 대한 종합보안대책 수립</li> <li>- 최근의 PC뱅킹, 폰뱅킹서비스로 인한 예금의 불법인출 사고발생에 따라 은행감독원이 마련한 PC뱅킹, 폰뱅킹에 대한 종합보안대책 주요내용</li> </ul>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 10. 21부터 조세지원저축 시행</li> <li>- '96. 10. 21부터 판매되는 조세지원저축인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의 주요내용</li> </ul>
10/18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 용자대상 확대</li> <li>- '96. 10. 17 개최된 제21차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국산기계구입용외화대출 용자대상 확대내용</li> <li>○ 은행취급 가계장기저축의 이율 및 기준율 결정</li> <li>- 한국은행이 '96. 10. 17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및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결정한 은행이 취급하는 가계장기저축의 이율과 예금지급준비율 내역</li> </ul>
10/17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의 주가지수선물 투자한도 확대</li> <li>- '96. 11. 1부터 시행되는 외국인의 주가지수선물 투자한도 확대내역</li> <li>○ 기업활동과 관련된 해외자금 공급 확대</li> <li>- '96. 10. 21부터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및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내역</li> </ul>
10/11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 3/4분기중 예금은행의 신금융상품 개발내용</li> <li>- '96. 3/4분기중 예금은행이 신규개발하여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저축상품의 현황 및 특징</li> </ul>
10/7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회사의 해외점포 설치제도 개선</li> <li>- 금융의 자율화,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증권회사 해외점포 설치제도 개선방안</li> </ul>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0/4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감독·검사업무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금융자유화의 진전, 금융시장 개방 등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은행감독·검사업무 운영체제를 선진국 수준에 맞도록 은행감독원이 시행하기로 한 은행감독·검사업무 개선 주요내용</li> </ul> </li> </ul>
10/3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 10. 4 정부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추어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한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주요내용</li> </ul> </li> </ul>
10/2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물거래업자 허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물거래제도 도입에 따라 '98년 선물시장 개선을 위하여 마련한 선물 거래업자 허가기준</li> </ul> </li> </ul>

부록

\* 주요경제통계 \*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년월중	경제성장률		1인당 GNP	소비		투자		
	GDP	제조업		총소비	민간소비	총고정투자		건설
	전년동기대비(%)		US\$	전년동기대비(%)				
1990	9.5	9.7	5,883	10.1	10.7	25.9	18.8	31.2
1991	9.1	9.1	6,757	9.3	9.5	12.6	12.1	13.0
1992	5.1	5.1	7,007	6.8	6.6	-0.8	-1.1	0.6
1993	5.8	5.0	7,513	5.3	5.7	5.2	-0.1	8.9
1994	8.6	10.4	8,508	7.0	7.6	11.8	23.6	4.5
1995	9.0	10.7	10,076	7.2	7.9	12.4	15.9	9.9
1996.1	7.9	7.8	-	7.2	7.5	7.3	4.3	10.0
2	7.9	7.8	-	7.2	7.5	7.3	4.3	10.0
3	7.9	7.8	-	7.2	7.5	7.3	4.3	10.0
4	6.7	6.5	-	6.7	7.1	4.2	3.4	4.8
5	6.7	6.5	-	6.7	7.1	4.2	3.4	4.8
6	6.7	6.5	-	6.7	7.1	4.2	3.4	4.8

무역, 국제수지											
년월중	부역				국제수지			외환 보유액 <sup>1)</sup>	환율		
	수출 (FOB)		I/C		수입 (CIF)		I/L			무역 수지	경상 수지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백만달러			년/월말	
1990	65,016	4.2	4.4	69,844	13.6	21.8	-2,004	-2,179	-274	14,822	716.4
1991	71,807	10.5	5.2	81,525	16.7	9.4	-6,980	-8,728	-3,741	13,733	760.8
1992	76,632	6.6	4.7	81,775	0.3	-10.3	-2,146	-4,529	4,898	17,154	788.4
1993	82,236	7.3	6.2	83,800	2.5	8.5	1,860	385	6,542	20,262	808.1
1994	96,013	16.8	15.7	102,348	22.1	40.3	-3,145	-4,531	2,822	25,673	788.7
1995	125,058	30.3	13.4	135,119	32.0	33.1	-4,749	-8,948	3,034	32,712	774.7
1996.1	10,067	29.7	10.7	12,046	34.4	23.9	951	-1,524	-554	33,264	784.3
2	9,976	18.3	-8.4	11,480	16.1	9.3	-1,164	-1,770	113	33,115	780.7
3	11,720	17.2	3.9	12,136	4.2	12.1	-128	-919	849	33,451	782.7
4	10,665	5.0	-5.9	12,670	14.2	7.7	-1,534	-2,326	509	35,930	778.7
5	11,257	5.7	-11.1	12,683	7.3	4.3	856	1,596	67	36,240	787.9
6	11,367	1.1	-7.8	11,707	-1.1	23.5	-571	-1,256	366	36,562	810.6
7	9,930	5.4	3.8	12,749	12.7	24.1	-1,740	-2,362	-2,581	35,062	813.3
8	9,722	-8.4	-11.0	12,957	12.5	5.5	-2,875	-3,524	-2,232	33,557	819.4
9	10,087	-8.1	-3.8	11,391	-1.9	1.1	-812	1,415	1,051	32,837	821.2

주: 최근 계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장기자본수지 기준

물가, 실업률, 이자율

년월중	물가 <sup>2)</sup>		실업률 (%)	제조업 명목임금 전년동기 대비(%)	통화 <sup>4)</sup>		이자율		
	생산자	소비자			M1	M2	제한인원	정기예금 금리 <sup>4)</sup>	회사채 수익률 <sup>5)</sup>
	전년동기 대비(%)								
1990	4.2(7.2)	8.6(9.4)	2.4	20.2	18.1	21.2	7.0	10.0	16.5
1991	4.7(1.9)	9.3(9.3)	2.3	16.9	16.1	18.6	7.0	10.0	18.9
1992	2.2(1.6)	6.2(4.5)	2.4	15.7	32.3	18.4	7.0	10.0	16.2
1993	1.5(2.0)	4.8(5.8)	2.8	10.9	22.1	18.6	5.0	8.5	12.6
1994	2.8(3.9)	6.2(5.6)	2.4	15.5	11.9	15.6	5.0	8.5-10.0	12.9
1995	4.7(3.4)	4.5(4.7)	2.0	9.9	11.6	15.5	5.0	7.5-10.0	13.8
1996.1	3.5	5.1	2.1	-0.1	8.2	12.5	5.0	7.5-10.0	12.0
2	3.7	5.1	2.3	35.3	14.1	14.8	5.0	7.5-10.0	11.9
3	2.2	4.5	2.2	14.4	11.7	14.6	5.0	7.5-10.0	11.8
4	2.0	4.6	2.0	12.8	9.8	14.0	5.0	7.5-9.0	11.0
5	1.7	5.1	1.9	9.0	9.9	15.3	5.0	7.5-9.0	11.0
6	1.6	5.5	1.9	9.7	9.8	16.3	5.0	7.5-9.0	11.6
7	2.3	5.6	1.8	14.1	8.9	17.1	5.0	7.5-9.0	11.9
8	2.3	5.3	1.9	6.0	8.7	17.4	5.0	7.5-9.0	12.3
9	2.3	4.7	1.8	-	9.1	17.5	5.0	7.5-9.0	12.2

주: 2) ( )내는 12월의 전년동기대비 3) 평균기준

4) 1년이상 정기예금금리, 단 1988년 12월 5일부터는 1년이상 2년미만 정기예금금리

5) 금리연동부사채

산업 생산, 수요

년월중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제조업	가동률 지수	전국 소매액	소비재 출하 <sup>6)</sup>	국내기계 수주 <sup>7)</sup>	기계류 수입 <sup>8)</sup>	건설 수주	건축 허가 면적	공업용		주거용
									공업용	주거용	
전년동기 대비 (%)											
1990	8.9	2.6	10.5	15.2	38.8	20.3	55.8	31.4	17.0	49.3	
1991	9.7	1.5	7.8	11.4	2.2	20.0	13.9	-9.7	6.7	-16.7	
1992	5.9	-1.4	5.5	5.2	-5.2	6.4	6.4	-10.0	-12.4	-7.4	
1993	4.2	-0.6	6.4	4.0	12.1	5.7	19.3	24.5	15.2	26.7	
1994	11.0	4.4	6.1	9.2	26.9	34.2	18.5	-1.3	16.8	-8.5	
1995	12.1	-0.4	8.6	7.4	15.8	37.8	21.2	1.0	3.3	-1.2	
1996.1	12.0	1.1	3.8	6.2	34.3	24.3	38.0	16.6	23.0	17.8	
2	7.8	-1.6	15.6	6.3	6.0	8.5	91.8	4.0	17.7	-5.4	
3	5.4	-3.1	11.1	3.8	-5.1	1.6	30.1	-20.9	-43.8	-20.4	
4	8.2	-0.2	8.8	7.1	11.7	0.2	11.8	-11.0	-29.6	1.1	
5	9.9	2.1	9.9	10.4	35.9	1.6	21.4	-18.8	-3.9	8.4	
6	3.7	-5.6	9.8	4.6	21.0	5.8	7.6	-19.6	-46.5	16.1	
7	7.8	0.7	9.5	5.0	-0.7	22.0	-12.7	46.1	22.9	33.1	
8	8.4	1.2	7.7	0.4	19.5	21.4	68.9	4.6	-10.0	-14.2	
9	7.2	-1.6	8.8	0.4	10.0	4.2	10.0	43.4	30.9	44.4	

주: 6) 내수용 7) 내수용, 선박제외 8) 내수용, 일반기계